

# 미래는 현재의 투자가 결정한다.

올 상반기 ESCO 자금추천이 기대에 못 미쳤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총 52건으로 964억 7500만원이 추천됐다. 올해 ESCO투자사업에 배정된 에너지융합리화 자금이 1700억원이다. 자금이 상반기까지 남아 있는 것은 지난 2006년도와 비교하면 신기할 정도이다.

이렇게 자금지원이 미진한 배경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내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이 제일 우선이다.

국내 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로 기업들은 투자를 꺼리고 있다. 경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투자보다 현금을 소유해 유동성을 늘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다. 리스크를 줄이는 것으로 기업들에게 당연한 수순이다.

올 상반기 ESCO 입찰 건수가 지난 2~3년 전과 비교할 때 반으로 준 사실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기업들의 투자위축은 ESCO 사업에도 영향을 크게 미친다. 기업들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ESCO 투자를 선순위보다 후순위로 두고 있는 마당에 투자를 줄이면 ESCO 투자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반적인 경기악화가 ESCO 사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산업체들이 ESCO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었다면 오히려 어려운 시기에 투자를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경영학에서 '경기가 어려울 때 투자를 늘려라'는 말이 있다. 이 때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다. 경기는 순환, 반복적이다. 경기가 어렵다고 투자를 줄이면 경기가 좋아질 때 오히려 그 호황을 누릴 수 없다. 또 경기 침체를 탈출하는 돌파구도 바로 이 투자에서 비롯된다.

특히 산업체의 ESCO 투자는 완전히 자기 부담으로 하는 다른 투자와 다르고, 또 그 효과가 에너지절감으로 바로 나타난다. 에너지절감은 곧 기업의 생산비



이범용 회장

감소이고 이는 생산성 향상으로 직결된다. 이 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다.

말이 투자이지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리스크 없는 투자는 투자가 아니라 적금이다. 최근 유가의 상승 등 에너지 비용의 폭발적인 급등을 감안하면 더욱 ESCO 투자의 중요성은 다가온다.

몇 년 전부터 에너지절감을 위해 투자해 온 산업체들은 지금 이 고유가의 상황에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내설지를 생각해 보면, ESCO 투자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 상반기 ESCO 자금 지원 내역을 보면 기업들의 ESCO 투자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투자 내역을 보면 공정개선이 16건, 294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추천됐다. 이어 폐열회수 분야 275억 9900만원(13건) 등이다. 금액으로 보면 열병합발전 분야가 3건이지만 292억 9500만원으로 크다. 열병합발전이 단위가 크다보니 작은 건수에도 금액은 상대적으로 높다.

공정개선과 폐열회수는 대부분 산업체들이다. 산업체가 고유가와 기후변화협약 등의 영향으로 ESCO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내 에너지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 분야의 ESCO 사업 활성화는 늘 지적돼온 일이다. 또 산업 분야에 ESCO 사례 적용 가능성도 넓고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전체적인 투자의 위축은 있어 아쉽지만, 산업체의 ESCO 사업 적용 건수가 높아진 것은 그나마 위안 받을 만하다.

하지만 아직 많은 산업체들이 이런 인식이 부족하다. 결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호기를 놓치고 있는 셈이다. 기업이나 산업체들이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이 바로 ESCO 투자를 결정해야 할 시기이다.